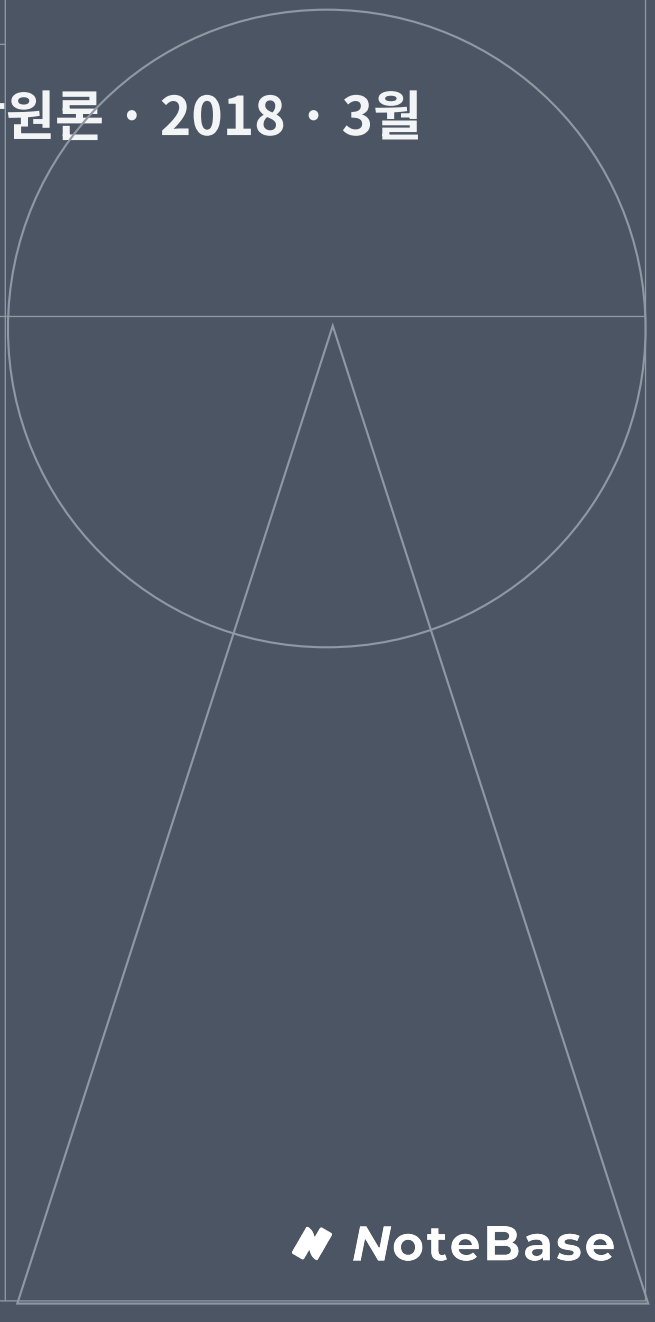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8 · 3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8 · 3월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8 · 3월

문 1. 최근 소득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득 불평등 측정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10분위 분배율의 값이 커질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지니계수의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는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완전균등한 소득분배의 경우 앳킨슨 지수값은 0이다.

④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워질수록 소득분배는 불평등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십분위분배율, 지니계수, 앳킨슨 지수, 로렌츠곡선이 소득분배의 평등·불평등과 어떤 방향으로 연결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 십분위분배율: 하위 40%의 소득점유율을 상위 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지표이다.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는 더 평등하다.
- 지니계수: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값이 클수록 불평등하다.
- 앳킨슨 지수: 불평등으로 인한 후생손실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완전균등분배이면 0이고 값이 클수록 불평등하다.
- 로렌츠곡선: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균등분배에 가깝고, 더 휘어질수록 불평등하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8 · 3월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은 '값이 커질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이다.
- 십분위분배율은 하위 40%의 몫이 상위 20%에 비해 클수록 커지는 지표이므로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는 더 평등하다.

② X
- 틀린 부분은 '지니계수의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는 평등하다'이다.
- 지니계수는 값이 커질수록 불평등이 심해짐을 뜻한다. 올바르게는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

③ O
- 완전균등한 소득분배에서는 불평등으로 인한 후생손실이 없으므로 앳킨슨 지수는 0이 된다.

④ X
- 틀린 부분은 '대각선에 가까워질수록 소득분배는 불평등하다'이다.
-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워질수록 실제 분배가 완전평등선에 가까워지므로 소득분배는 더 평등하다.

오답 포인트

불평등 지표는 값이 커질수록 불평등해지는 지표와 값이 커질수록 평등해지는 지표가 섞여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지니계수와 앳킨슨 지수의 방향을 십분위분배율이나 로렌츠곡선과 같은 방향으로 착각하면 ①, ②, ④를 헷갈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지표가 불평등 자체를 수치화하는지, 평등에 가까운 정도를 보여 주는지부터 구분한다. 지니계수와 앳킨슨 지수는 클수록 불평등, 십분위분배율은 클수록 평등,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지니·앳킨슨은 클수록 불평등, 십분위분배율은 클수록 평등,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이다.

NoteBase

문 2.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에 물품세를 부과하였을 경우 조세전가가 발생하게 된다. 조세전가로 인한 소비자부담과 생산자부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의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클수록 생산자부담이 커지게 된다.

②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의 경우 공급의 가격탄력도가 작을수록 소비자부담은 작아지게 된다.

③ 소비자 또는 생산자 중 누구에게 부과하느냐에 따라 소비자부담과 생산자부담의 크기는 달라진다.

④ 수요가 가격변화에 대해 완전탄력적이면 조세는 생산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물품세의 경제적 귀착이 법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세전가는 세금 부과 이후 가격 조정을 통해 세 부담이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나뉘는 현상이다.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소비자는 가격 상승을 더 많이 감수하므로 소비자부담이 커진다.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생산자는 세금만큼 가격을 충분히 올리기 어려우므로 생산자부담이 커진다.
경제적 귀착은 소비자에게 과세하든 생산자에게 과세하든 같고, 부담 비율은 탄력성으로 결정된다.

선지별 해설

1번: O.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서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클수록 소비자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수요를 크게 줄인다. 따라서 생산자가 가격에 세금을 전가하기 어려워져 생산자부담이 커진다.
2번: O. 공급의 가격탄력도가 작을수록 공급자는 생산량을 잘 줄이지 못하므로 세금 부담을 더 많이 떠안는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중은 작아져 소비자부담은 작아진다.
3번: X. 틀린 표현은 '누구에게 부과하느냐에 따라 소비자부담과 생산자부담의 크기는 달라진다'이다. 실제로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든 생산자에게 부과하든 경제적 귀착은 같고, 부담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4번: O. 수요가 가격변화에 대해 완전탄력적이면 소비자는 기존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비싸지면 전혀 사지 않는다. 따라서 가격 인상이 불가능하므로 세금은 전적으로 생산자가 부담하게 된다.

오답 포인트

3번은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을 혼동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세금을 서류상 누구에게 매기느냐와 실제로 누가 부담하느냐는 다른 문제이며, 실제 부담은 탄력성이 작은 쪽이 더 크게 진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세부담 문제는 먼저 '누가 더 비탄력적인가'를 본다. 더 비탄력적인 쪽이 더 큰 부담을 지고, 과세 대상을 소비자나 생산자 중 누구로 적었는지는 정답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조세부담은 법적 부과 대상이 아니라 상대적 비탄력성에 귀착된다.

NoteBase

문 3. 완전경쟁시장에서 조업하는 동질적인 기업들은 $Q^d = 50 - P$의 시장수요함수를 가지며, $Q^s = 5P - 10$인 시장공급함수를 가진다. 개별 기업들의 평균비용곡선은 $AC(Q) = Q + \frac{2}{Q} + 2$일 때 이윤극대화를 위한 개별기업의 생산량은?

① 2

② 3

③ 4

④ 5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경쟁시장에서 시장균형가격을 구한 뒤, 개별기업이 $P = MC$ 조건으로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시장수요함수는 $Q^d = 50 - P$, 시장공급함수는 $Q^s = 5P - 10$, 개별기업의 평균비용은 $AC(Q) = Q + \frac{2}{Q} + 2$이다.
구해야 할 값: 이윤극대화를 위한 개별기업의 생산량이다.
주의할 조건: 시장수요와 시장공급은 시장 전체의 식이고, 개별기업 생산량은 완전경쟁에서 $P = MC$로 구한다.

사용할 공식

시장균형은 $Q^d = Q^s$로 구하고,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P = MC$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완전경쟁기업은 가격수용자이므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한계수입으로 받아들이며, 생산량은 그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된다.

계산 과정

1. 시장균형가격을 구하면 $50 - P = 5P - 10$이므로 $60 = 6P$, 따라서 $P = 10$이다.
2. 평균비용에서 총비용을 복원하면 $TC = Q \cdot AC = Q\left(Q + \frac{2}{Q} + 2\right) = Q^2 + 2Q + 2$이다.
3. 따라서 한계비용은 $MC = \frac{dTC}{dQ} = 2Q + 2$이다.
4.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 $P = MC$를 적용하면 $10 = 2Q + 2$이므로 $Q = 4$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8 · 3월

선지 판단

1번: X
계산 결과 개별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4이므로 2는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생산량을 2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P = MC$를 적용해 4가 된다.
2번: X
계산 결과가 4이므로 3은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개별기업의 생산량을 3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총비용에서 한계비용을 구해 $10 = 2Q + 2$를 풀면 4가 된다.
3번: O
시장균형가격이 10이고, 개별기업의 한계비용이 $MC = 2Q + 2$이므로 $10 = 2Q + 2$에서 $Q = 4$가 된다. 따라서 3번이 옳다.
4번: X
5는 MC를 $2Q$로 잘못 구해 $10 = 2Q$로 풀 때 나오는 값이다. 틀린 표현은 한계비용에서 $+2$를 빠뜨린 점이며, 올바르게는 $MC = 2Q + 2$이므로 생산량은 4가 된다.

오답 포인트

시장 전체의 공급함수와 개별기업의 비용함수를 섞으면 틀리기 쉽다. 특히 평균비용 AC가 주어졌을 때 바로 $P = AC$를 쓰거나, 총비용으로 복원하지 않고 한계비용을 잘못 구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경쟁 계산형은 먼저 시장식으로 가격을 구하고, 그다음 개별기업 비용식에서 $TC \rightarrow MC$를 만든 뒤 마지막에 $P = MC$를 적용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완전경쟁기업의 생산량 결정은 시장가격 확정 후 $P = MC$이며, AC가 주어지면 먼저 $TC = Q \cdot AC$로 바꾼다.

NoteBase

문 4. 다음 표는 노동과 자본의 다양한 결합으로 얻을 수 있는 생산물의 양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노동 1단위와 자본 1단위를 결합하여 생산물 100단위를 얻을 수 있다.) 표에 나타난 생산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본량 \ 노동량	1	2	3
1	100	140	150
2	130	200	240
3	150	230	300

①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이 성립한다.

②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성립한다.

③ 자본의 한계생산은 체감한다.

④ 노동의 한계생산은 체감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표에서 노동과 자본을 같은 비율로 늘렸을 때의 규모수익과, 한 요소를 1단위씩 추가할 때의 한계생산 변화를 읽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대각선 조합 $(L, K) = (1, 1), (2, 2), (3, 3)$의 산출량을 비교해 규모수익을 본다.
2. 노동을 고정하고 자본을 1단위씩 늘린 증가분, 자본을 고정하고 노동을 1단위씩 늘린 증가분을 각각 계산한다.
3. 각 선지가 말하는 개념이 대각선 비율과 행·열 증가분에 맞는지 연결한다.

핵심 근거

대각선 값은 100, 200, 300이므로 두 생산요소를 같은 비율로 늘리면 산출량도 정확히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 또한 노동을 고정했을 때 자본의 한계생산은 각 열에서 30→20, 60→30, 90→60으로 줄어들고, 자본을 고정했을 때 노동의 한계생산도 각 행에서 40→10, 70→40, 80→70으로 줄어든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8 · 3월

선지별 해설

① O
- 근거 위치: 대각선 조합 (1, 1), (2, 2), (3, 3)의 산출량 100, 200, 300이다.
- 두 요소를 2배 투입하면 산출량도 2배, 3배 투입하면 산출량도 3배가 되므로 규모수익불변이 성립한다.

② X
- 근거 위치: ①과 같은 대각선 값 100, 200, 300이다.
- 규모의 경제는 투입을 같은 비율로 늘릴 때 산출량이 그보다 더 크게 늘어나는 경우와 연결되는데, 이 표는 산출량이 정확히 같은 비율로만 늘어난다.
- 틀린 표현은 "규모의 경제가 성립한다"이고, 올바르게는 "규모수익불변이 성립한다"이다.

③ O
- 근거 위치: 노동량을 고정한 각 열의 자본 증가분이다.
- 노동 1단위에서는 100→130→150으로 자본의 한계생산이 30, 20이고, 노동 2단위에서는 140→200→230으로 60, 30이며, 노동 3단위에서는 150→240→300으로 90, 60이다.
- 증가분이 계속 줄어드므로 자본의 한계생산은 체감한다.

④ O
- 근거 위치: 자본량을 고정한 각 행의 노동 증가분이다.
- 자본 1단위에서는 100→140→150으로 노동의 한계생산이 40, 10이고, 자본 2단위에서는 130→200→240으로 70, 40이며, 자본 3단위에서는 150→230→300으로 80, 70이다.
- 증가분이 계속 줄어드므로 노동의 한계생산은 체감한다.

오답 포인트

규모수익불변과 규모의 경제를 같은 말로 섞으면 ②에 걸리기 쉽다. 이 문항은 산출량이 크게 늘어나는지만 보는 문제가 아니라, 투입 증가 비율과 산출 증가 비율이 정확히 같은지 더 큰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규모수익은 대각선처럼 모든 생산요소를 함께 늘린 조합으로 본다. 한계생산 체감은 한 요소를 고정한 채 다른 요소를 1단위씩 더했을 때의 증가분이 줄어드는지 행·열 차이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대각선 비교는 규모수익, 행·열 차분은 한계생산이다.

NoteBase

문 5. IS-LM 모형에서, IS곡선이 $Y = 1{,}200 - 60r$, 화폐수요곡선은 $\frac{M^d}{P} = Y - 60r$, 통화량은 800, 물가는 2이다. 통화량이 1,200으로 상승하면, Y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단, Y는 국민소득, r은 실질이자율, P는 물가이다.)

① 50

② 100

③ 150

④ 2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IS곡선과 LM곡선을 연립해 통화량 증가가 균형국민소득 Y를 얼마나 늘리는지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IS곡선: $Y = 1200 - 60r$
- 화폐수요식: $M^d/P = Y - 60r$
- 초기 통화량: 800, 물가: 2
- 증가 후 통화량: 1,200

구해야 할 값:
- 통화량 증가 전후의 균형소득 변화분

주의할 조건:
- LM식은 명목통화량이 아니라 실질통화량 M/P로 세운다.

사용할 공식

화폐시장의 균형조건은 $M/P = Y - 60r$이다. 이를 $Y = M/P + 60r$로 고치면 LM곡선이 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 문제에서 화폐수요식, 통화량, 물가를 함께 주었으므로 실질통화량을 구해 LM곡선을 만든 뒤 IS곡선과 연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초기 실질통화량은 $800/2 = 400$이므로 초기 LM곡선은 $400 = Y - 60r$, 즉 $Y = 400 + 60r$이다.
2. 초기 균형은 $1200 - 60r = 400 + 60r$이므로 $120r = 800$, $r = 20/3$, $Y = 800$이다.
3. 통화량이 1,200으로 늘어나면 실질통화량은 $1200/2 = 600$이므로 새 LM곡선은 $600 = Y - 60r$, 즉 $Y = 600 + 60r$이다.
4. 새 균형은 $1200 - 60r = 600 + 60r$이므로 $120r = 600$, $r = 5$, $Y = 900$이다.
5. 따라서 국민소득 증가는 $900 - 800 = 100$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계산 결과 증가분은 50이 아니라 100이다. 틀린 표현은 '50 증가'이고, 올바르게는 '100 증가'이다.
- 50은 실질통화량 증가분 200을 한 번 더 절반으로 잘못 줄인 경우에 가까운 오답이다.

② O
- 계산 결과 통화량 증가 전 소득은 800, 증가 후 소득은 900이므로 증가분은 100이다.
- 따라서 '100 증가'는 맞는 표현이다.

③ X
- 계산 결과 증가분은 150이 아니라 100이다. 틀린 표현은 '150 증가'이고, 올바르게는 '100 증가'이다.
- 150은 실질통화량 증가분과 소득 증가분을 구분하지 못할 때 고르기 쉬운 값이다.

④ X
- 계산 결과 증가분은 200이 아니라 100이다. 틀린 표현은 '200 증가'이고, 올바르게는 '100 증가'이다.
- 200은 M/P의 증가분 자체이며, IS와 LM을 함께 보면 소득은 그 전부가 아니라 절반만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통화량 800에서 1,200으로의 증가를 곧바로 소득 증가분으로 보는 데 있다. 명목통화량을 먼저 물가 2로 나누어 실질통화량으로 바꿔야 하고, 그 뒤에도 IS와 LM을 연립해야 실제 소득 증가분이 100으로 정리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IS-LM 계산형은 1) 명목통화량을 M/P로 환산하고 2) 화폐시장 균형식으로 LM을 만든 뒤 3) IS와 연립해 전후 균형소득을 비교하면 된다. 이 문항처럼 $Y = 1200 - 60r$와 $Y = M/P + 60r$가 대칭이면 $Y = (1200 + M/P)/2$로 바로 정리할 수도 있다.

암기 포인트

통화량 변화 효과는 먼저 실질통화량 M/P로 바꿔서 본다. 이 문항은 $Y = (1200 + M/P)/2$이므로 $\Delta Y = \Delta(M/P)/2$이다.

NoteBase

문 6. 영수는 자신의 노동력(시간)을 투입하여 산삼을 채취하고 그 산삼을 팔아서 소득을 얻으며, 쌀과 산삼, 그리고 여가시간을 소비한다. 만일 쌀 가격은 일정한데 산삼 가격이 상승한다면, 영수가 보일 행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쌀과 산삼, 여가는 모두 정상재이며, 산삼 채취량은 노동시간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① 노동시간은 늘리고 쌀의 소비는 줄일 것이다.

② 노동시간은 늘리고 산삼의 소비는 줄일 것이다.

③ 노동시간은 늘릴지 줄일지 알 수 없고, 산삼의 소비는 줄일 것이다.

④ 노동시간은 늘릴지 줄일지 알 수 없고, 산삼의 소비도 늘릴지 줄일지 알 수 없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산삼 가격 상승이 자기노동 기반 가계의 노동공급과 자가소비 산삼 수요에 미치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영수는 자신의 시간을 써서 산삼을 채취하고 그 판매수입으로 쌀과 산삼, 여가를 소비한다.
쌀 가격은 일정하고 산삼 가격만 상승한다.
산삼 채취량은 노동시간에 비례하므로 산삼 가격 상승은 노동의 보수 상승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핵심 개념

이 문제의 핵심은 자기노동 생산자의 노동공급과 자가생산물 소비를 함께 보는 것이다.
산삼 가격 상승은 한편으로 여가의 기회비용을 높여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대체효과를 만든다.
다른 한편으로 영수는 산삼을 팔아 소득을 얻는 순공급자이므로 실질소득이 늘어나 여가와 산삼 소비를 늘리려는 소득효과가 생긴다.

적용 기준

노동시간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반대방향이므로 방향을 단정할 수 없다.
산삼 소비도 가격상승에 따른 대체효과는 감소 방향이지만, 정상재이므로 소득효과는 증가 방향이어서 역시 방향을 단정할 수 없다.
반면 쌀은 상대적으로 싸지고 소득도 늘어나므로 소비가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쌀은 산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지고, 영수의 소득도 증가하므로 쌀 소비는 줄기보다 늘 가능성이 크다.
틀린 표현은 "쌀의 소비는 줄일 것이다"이다. 올바르게는 "쌀의 소비는 늘 가능성이 크다"이다.

② X
산삼 가격 상승은 노동의 보수를 높이므로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대체효과가 있다. 그러나 소득이 늘어나 정상재인 여가를 더 원하면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소득효과도 생긴다.
틀린 표현은 "노동시간은 늘리고"와 "산삼의 소비는 줄일 것이다"를 단정한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노동시간은 늘 수도 줄 수도 있고, 산삼 소비도 늘 수도 줄 수도 있다"이다.

③ X
노동시간이 늘지 줄지 알 수 없다는 판단은 맞다. 다만 산삼 소비는 가격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정상재로서의 소득효과가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반드시 줄어든다고 할 수 없다.
틀린 표현은 "산삼의 소비는 줄일 것이다"이다. 올바르게는 "산삼의 소비도 늘지 줄지 단정할 수 없다"이다.

④ O
노동시간은 여가의 기회비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증가에 따른 여가수요 증가 효과가 충돌하므로 방향이 불확실하다.
산삼 소비도 가격상승으로 줄이려는 대체효과와 소득증가로 늘리려는 효과가 함께 작용하므로 방향이 불확실하다.

오답 포인트

산삼 가격 상승을 단순히 "산삼이 비싸졌으니 산삼 소비는 줄고 노동은 늘어난다"로만 보면 함정에 걸린다. 이 문항의 핵심은 영수가 산삼의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산삼의 생산자라는 점이다. 생산자로서의 소득증가 효과를 같이 보지 않으면 ②나 ③으로 오답 처리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기노동으로 어떤 재화를 생산해 파는 사람의 가격 변화 문제는 먼저 소비자 효과와 생산자 효과를 분리해서 본다.
노동공급은 대체효과와 여가의 소득효과가 같은지 반대인지 확인한다.
자가생산물 소비는 가격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순공급자로서의 소득효과가 반대방향이면 방향을 단정하지 않는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자기생산물 가격 상승은 노동에는 대체효과 대 소득효과, 자가소비에는 가격효과 대 소득효과가 충돌하므로 둘 다 불확실할 수 있다.

NoteBase

문 7. 독점적 경쟁의 장기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② 한계수입곡선은 수평선으로 그 자체가 시장가격을 의미한다.

③ 광고 및 애프터서비스 등을 통해 차별화 전략을 추진한다.

④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우며 초과설비가 존재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독점적 경쟁의 장기균형에서 개별기업의 수요곡선, 한계수입, 비가격경쟁, 초과설비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독점적 경쟁은 많은 기업이 차별화된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형태이므로 개별기업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진다.
이때 기업은 완전한 가격수용자가 아니어서 수요곡선과 별도로 그 아래에 한계수입곡선을 가진다.
장기에는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 경제적 초과이윤이 0이 되지만,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보다 작은 산출량에서 생산하여 초과설비가 남는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8 · 3월

선지별 해설

① O
개별기업은 상품차별화 때문에 자기 상품에 대한 독자적 수요를 가지므로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한계수입곡선은 수평선으로서 그 자체가 시장가격을 의미한다"는 표현이다.
독점적 경쟁에서 수평선으로 시장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한계수입곡선이 아니라 완전경쟁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다.
독점적 경쟁기업의 한계수입곡선은 우하향하며 수요곡선 아래에 위치한다.

③ O
독점적 경쟁에서는 상품차별화가 핵심이므로 광고, 브랜드, 애프터서비스 같은 비가격경쟁을 통해 차별화 전략을 추진한다.

④ O
독점적 경쟁의 장기균형에서는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 초과이윤이 사라지고, 동시에 최적규모보다 작은 생산을 하므로 초과설비가 존재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완전경쟁의 특징인 "수평 수요곡선, 가격과 한계수입의 일치"를 독점적 경쟁에 섞어 놓은 선지이다.
수요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의 모양을 시장형태별로 구분하지 못하면 가장 쉽게 흔들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장형태 문제가 나오면 먼저 상품차별화가 있는지를 본다. 차별화가 있으면 개별기업 수요는 우하향하고 한계수입은 그 아래에 놓인다. 장기균형에서는 진입 자유로 초과이윤이 0이 되고 초과설비가 남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독점적 경쟁은 차별화된 상품, 우하향 수요, 수요 아래의 한계수입, 장기 초과이윤 0, 초과설비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8. 어느 한 국가의 기대를 반영한 필립스곡선이 <보기>와 같을 때 가장 옳은 것은? (단, π는 실제인플레이션율, π^e는 기대인플레이션율, u는 실업률이다.)

<보기>

$\pi = \pi^e - 0.5u + 2.2$

① 기대인플레이션율의 변화 없이 실제인플레이션율이 전기에 비하여 1%p 감소하면 실업률이 7.2%가 된다.

②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장기 필립스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③ 잠재GDP에 해당하는 실업률은 4.4%이다.

④ 실제 실업률이 5%이면 실제인플레이션율은 기대인플레이션율보다 높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대를 반영한 필립스곡선을 자연실업률 형태로 정리하여 잠재GDP 수준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괴리를 판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식: $\pi = \pi^e - 0.5u + 2.2$
구해야 할 값: 잠재GDP에 해당하는 실업률과 각 선지의 진위
주의할 조건: 잠재GDP 수준에서는 실제인플레이션율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이 같고, 기대인플레이션율 변화는 장기필립스곡선이 아니라 단기필립스곡선을 이동시킨다.

사용할 공식

$\pi = \pi^e - 0.5u + 2.2$
$\pi - \pi^e = -0.5u + 2.2 = -0.5(u - 4.4)$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실제인플레이션율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차이가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잠재GDP 수준에서는 $\pi = \pi^e$이므로 $\pi - \pi^e = 0$으로 둔다.
2. 식 $-0.5u + 2.2 = 0$을 풀면 $u = 4.4$가 된다.
3. 따라서 자연실업률, 즉 잠재GDP에 해당하는 실업률은 4.4%이다.
4. 추가로 $u = 5$이면 $\pi - \pi^e = -0.5 \times 5 + 2.2 = -0.3$이므로 실제인플레이션율은 기대인플레이션율보다 0.3%p 낮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전기에 비하여 1%p 감소하면 실업률이 7.2%가 된다'는 진술은 주어진 식이 전기 대비 변화가 아니라 π와 π^e의 차이로 결정된다는 점을 놓친 것이다. 이 식만으로는 전기 대비 1%p 감소만 보고 바로 $u = 7.2$를 얻을 수 없다. 틀린 표현은 '전기에 비하여 1%p 감소하면 실업률이 7.2%'이다. 올바르게는 '실제인플레이션율이 기대인플레이션율보다 1%p 낮으면 실업률은 6.4%이다'이다.

② X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같은 실업률에서 실제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아지므로 단기 필립스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한다. 장기 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 4.4에서 수직이므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보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장기 필립스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이다. 올바르게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단기 필립스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한다'이다.

③ O
잠재GDP 수준에서는 실제인플레이션율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이 같으므로 $\pi = \pi^e$이다. 이를 식에 대입하면 $-0.5u + 2.2 = 0$, 따라서 $u = 4.4$가 된다. 잠재GDP에 해당하는 실업률이 4.4%라는 진술은 옳다.

④ X
실제 실업률이 5%이면 $\pi - \pi^e = -0.5 \times 5 + 2.2 = -0.3$이다. 따라서 실제인플레이션율은 기대인플레이션율보다 0.3%p 낮다. 틀린 표현은 '실제인플레이션율은 기대인플레이션율보다 높다'이다. 올바르게는 '실제인플레이션율은 기대인플레이션율보다 낮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전기 대비 변화와 기대 대비 괴리를 혼동하게 만드는 선지이고, ②는 기대인플레이션율 변화가 단기와 장기 중 어느 곡선을 이동시키는지 묻는 함정이다. ④는 $u = 5$를 대입했을 때 부호가 음수라는 점을 놓치면 높다와 낮다가 뒤바뀐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대반영 필립스곡선은 먼저 $\pi - \pi^e = -0.5(u - u_n)$ 꼴로 정리한 뒤 자연실업률 u_n을 찾고, 각 선지는 기대 대비 괴리의 부호와 단기·장기 곡선 구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대반영 필립스곡선은 $\pi = \pi^e$일 때 자연실업률이 나오고, 기대인플레이션율 변화는 단기 필립스곡선을 이동시킨다.

NoteBase

문 9. 경제성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해로드-도마(Harrod-Domar)성장모형은 자본과 노동의 대체불가능성을 가정하여 완전고용에서 균형성장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경로가 불안하다는 모형이다.
ㄴ. 솔로우(Solow)성장모형은 장기적으로 생산요소 간의 기술적 대체가 가능함을 전제하여 자본주의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ㄷ. 내생적(endogenous)성장이론은 각국의 지속적인 성장률 격차를 내생변수 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해로드-도마, 솔로우, 내생적 성장 이론의 가정과 장기 성장 설명 방식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해로드-도마 성장모형: 자본과 노동의 비율이 고정되어 요소대체가 불가능한 고정계수(레온티에프형) 모형으로, 완전고용 균형성장 경로가 존재해도 요소대체로 조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경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누적적으로 이탈하는 불안정성을 보인다.
솔로우 성장모형: 생산요소 간 대체가 가능한 신고전파 성장모형으로, 한계생산 체감과 요소대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상상태 수렴을 설명하지만, 장기 성장의 동력인 기술진보 자체는 모형 밖에서 주어지는 외생변수로 취급한다.
내생적 성장 이론: 기술진보와 성장의 원인을 모형 내부의 지식축적, 인적자본, 연구개발 같은 내생변수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여 국가 간 성장률 격차의 지속을 해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과 ㄴ은 모두 옳지만 ㄷ도 옳다. 틀린 부분은 'ㄱ, ㄴ만 해당한다'는 조합이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다.

② X
ㄱ과 ㄷ은 옳지만 ㄴ도 옳다. 솔로우 모형은 요소대체 가능성을 전제로 안정적 성장을 설명하므로 ㄴ을 뺀 조합은 틀리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다.

③ X
ㄴ과 ㄷ은 옳지만 ㄱ도 옳다. 해로드-도마 모형은 고정계수와 균형성장 경로의 불안정성이 핵심이므로 ㄱ을 제외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다.

④ O
ㄱ은 해로드-도마 모형의 고정계수 가정과 불안정성을 정확히 설명한다. ㄴ은 솔로우 모형의 요소대체 가능성과 안정적 정상상태 성장을 정확히 설명한다. ㄷ은 내생적 성장 이론이 성장률 격차를 모형 내부 변수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는 점을 정확히 짚는다.

오답 포인트

해로드-도마와 솔로우를 모두 성장모형으로만 기억하면 요소대체 가능성 여부와 안정성 차이를 놓치기 쉽다. 또 내생적 성장 이론을 기술진보 설명 정도로만 외우면 국가 간 성장률 격차의 지속 설명 기능을 빠뜨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성장모형 문제는 먼저 요소대체 가능성, 기술진보의 외생·내생 여부, 장기 균형의 안정성이라는 세 축으로 나누어 본다. 고정계수와 불안정성이 나오면 해로드-도마, 요소대체와 안정적 정상상태가 나오면 솔로우, 기술진보를 모형 내부에서 설명하면 내생적 성장 이론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해로드-도마는 고정계수·불안정, 솔로우는 대체가능·안정수렴, 내생성장은 기술진보 내생화·격차 지속 설명이다.

NoteBase

문 10.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의 가격이 매우 높아서 더 이상 높아지지 않으리라 예상한다.

② 통화정책이 효과가 없다.

③ 화폐수요곡선이 우상향한다.

④ 추가되는 화폐공급이 모두 투기적 수요로 흡수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유동성 함정에서 채권가격, 이자율, 화폐수요의 탄력성, 통화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유동성 함정은 이자율이 매우 낮고 채권가격이 매우 높아 사람들이 채권가격의 추가 상승보다 미래 하락 가능성을 더 크게 보아 현금을 보유하려는 상태이다. 일반적인 화폐수요는 이자율이 오를수록 감소하지만,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이자율 변화에 대해 화폐수요가 거의 완전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유동성 함정에서는 이자율이 매우 낮으므로 채권가격은 매우 높은 상태이다. 이때 사람들은 채권가격이 더 오르기 어렵고 오히려 나중에 하락할 수 있다고 보아 채권 대신 화폐를 보유하려 한다.
② O: 추가 화폐공급이 이자율을 더 낮추지 못하고 사람들이 현금으로 그냥 보유하므로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본다.
③ X: 틀린 부분은 '우상향한다'이다. 화폐수요는 이자율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관계이며, 유동성 함정에서는 이자율에 대해 거의 완전탄력적이어서 통상 수평에 가깝게 나타난다.
④ O: 유동성 함정에서는 추가되는 화폐공급이 채권매입이나 투자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투기적 화폐수요에 흡수되므로 이자율 하락 효과가 사라진다.

오답 포인트

③의 '우상향'은 화폐수요곡선과 다른 곡선의 방향을 혼동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유동성 함정에서 핵심은 화폐수요가 매우 커진다는 점이지, 곡선의 방향이 우상향으로 바뀐다는 뜻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동성 함정이 나오면 저이자율, 고채권가격, 추가 화폐의 현금보유 흡수, 통화정책 무력화, 화폐수요의 완전탄력성을 한 묶음으로 연결해 판단한다. 이 다섯 요소 중 하나라도 반대로 서술되면 오답 가능성이 크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유동성 함정 = 저이자율, 고채권가격, 완전탄력적 화폐수요, 통화정책 무력화이다.

NoteBase

문 11. 상품시장과 경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소효율규모(minimum efficient scale)란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이 나타나는 생산수준이다.

② 꾸르노경쟁(Cournot competition)에서는 각 기업이 상대방의 현재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경쟁한다.

③ 부당염매행위(predatory pricing)는 일시적 출혈을 감수하면서 가격을 낮춰 경쟁기업을 몰아내는 전략이다.

④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은 규모의 경제가 현저해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살아남기 어려워 형성된 독점체계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과점시장 경쟁 방식과 시장구조 관련 개념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쿠르노경쟁은 경쟁기업의 생산량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생산량을 선택하는 수량경쟁이다.
베르트랑경쟁은 경쟁기업의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가격을 선택하는 가격경쟁이다.
최소효율규모는 장기평균비용이 최저가 되는 생산수준이며, 자연독점은 규모의 경제가 커서 한 기업이 시장 전체를 공급하는 편이 더 효율적인 시장구조이다.
부당염매행위는 단기 손실을 감수하면서 가격을 낮춰 경쟁자를 퇴출시키고 시장지배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최소효율규모는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 대응하는 산출량을 뜻하므로 옳다.
② X. 틀린 표현은 '상대방의 현재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가격을 결정'이다. 쿠르노경쟁은 상대방의 생산량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생산량을 정하는 모형이다. 가격을 전략변수로 삼는 것은 베르트랑경쟁이다.
③ O. 부당염매행위는 일시적 손실이나 이윤 감소를 감수하면서 가격을 낮춰 경쟁기업의 퇴출을 유도하는 전략이므로 옳다.
④ O. 자연독점은 규모의 경제가 넓은 산출범위에서 지속되어 복수 기업보다 단일 기업 공급이 더 저비용인 경우이므로,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살아남기 어려워 독점체계가 형성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오답 포인트

②는 쿠르노와 베르트랑의 전략변수를 바꿔 놓은 선지이다. 선지에 '가격'이 두 번 나오면 가격경쟁인 베르트랑의 특징일 가능성이 높고, 쿠르노는 가격이 아니라 생산량 선택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과점경쟁 모형은 상대방의 무엇을 주어진 것으로 두고 자신의 무엇을 선택하는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생산량을 선택하면 쿠르노, 가격을 선택하면 베르트랑, 저가공세로 경쟁자 퇴출을 노리면 부당염매행위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쿠르노=수량, 베르트랑=가격, 최소효율규모=평균비용 최저 산출량, 자연독점=규모의 경제가 만든 1기업 시장이다.

NoteBase

문 12. 독점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시장수요곡선은 $P = 12 - \frac{1}{2}Q$이고, 한계비용은 항상 2로 일정하다. 이 시장에 정부가 개당 2의 종량세(quantity tax)를 부과할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은?

① 11

② 12

③ 14

④ 15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독점시장에 종량세가 부과될 때 독점 균형 산출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구한 뒤, 그 감소 구간에서 추가 자중손실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조건 정리

수요곡선은 $P = 12 - \frac{1}{2}Q$이다.
한계비용은 항상 $MC = 2$이다.
종량세가 개당 2 부과되면 기업 입장 한계비용은 $MC + t = 4$가 된다.
구해야 할 값은 세금 때문에 독점균형에서 추가로 발생한 자중손실이다.

사용할 공식

독점기업은 $MR = MC$에서 생산량을 정한다.
종량세 부과 후에는 $MR = MC + t$로 바뀐다.
추가 자중손실은 과세로 줄어든 산출량 구간에서 수요곡선과 원래 한계비용 사이의 면적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세금이 사회적 한계비용 자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독점기업의 생산 결정을 왜곡해 산출량을 더 줄이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총수입은 $TR = (12 - \frac{1}{2}Q)Q = 12Q - \frac{1}{2}Q^2$이다.
따라서 한계수입은 $MR = 12 - Q$이다.
세금이 없을 때는 $12 - Q = 2$이므로 독점 산출량은 $Q_M = 10$이다.
종량세 2 부과 후에는 $12 - Q = 4$이므로 산출량은 $Q_T = 8$이다.
수요곡선에서 $Q = 8$일 때 가격은 8, $Q = 10$일 때 가격은 7이다.
따라서 추가 자중손실은 독점 산출량 10에서 과세 후 8로 줄어든 구간의 사다리꼴 면적이다.
DWL_추가=((8-2)+(7-2))/(2)×(10-8)=(6+5)/(2)×2=11
따라서 추가 자중손실은 11이다.

선지 판단

1번 O: 계산 결과 추가 자중손실은 11이다. 세금이 독점 산출량을 10에서 8로 줄이면서 생긴 8부터 10까지 구간의 면적만 따로 계산하면 된다.
2번 X: 추가 자중손실을 12로 보면 틀리다. 올바르게는 과세 전 독점균형과 과세 후 균형 사이의 면적을 계산한 11이 된다.
3번 X: 추가 자중손실을 14로 보는 것도 틀리다. 올바르게는 세금으로 줄어든 2단위 구간에서 수요곡선과 한계비용 사이의 면적이므로 11이 된다.
4번 X: 추가 자중손실을 15로 계산하면 기존 독점의 자중손실이나 다른 면적을 섞은 것이다. 올바르게는 세금으로 새로 늘어난 비효율만 계산해 11이 된다.

오답 포인트

독점 자체의 자중손실과 세금 때문에 추가로 늘어난 자중손실을 구분하지 못하면 틀리기 쉽다. 이 문제는 전체 자중손실이 아니라 독점균형 10에서 과세 후 8로 더 줄어든 부분만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독점 과세 문제는 먼저 세금 전 $MR = MC$로 독점 산출량을 구하고, 다음에 세금 후 $MR = MC + t$로 새 산출량을 구한 뒤, 두 산출량 사이에서 수요곡선과 원래 MC 사이 면적만 추가 자중손실로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독점의 종량세 추가 자중손실은 세금 때문에 더 줄어든 산출량 구간의 수요곡선과 MC 사이 면적이다.

NoteBase

문 13. <보기>의 경기자 갑은 A와 B, 경기자 을은 C와 D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각 전략 조합에서 첫 번째 숫자는 경기자 갑, 두 번째 숫자는 경기자 을의 보수이다. 이 게임에 대한 설명 가운데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갑 \ 을	C	D
A	(5, 15)	(10, 12)
B	(−2, 10)	(8, 5)

① 우월전략을 갖지 못한 경기자가 있지만, 내쉬균형은 1개 존재한다.

② 각 경기자 모두 우월전략을 가지므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다.

③ 다른 경기자의 선택을 미리 알 경우, 모르고 선택하는 경우와 다른 선택을 하는 경기자가 있다.

④ 내쉬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보수행렬에서 각 경기자의 우월전략, 내쉬균형, 파레토 효율성을 함께 읽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각 칸의 첫 번째 숫자가 갑, 두 번째 숫자가 을의 보수라는 조건을 먼저 확인한다.
2. 을이 C를 택할 때와 D를 택할 때를 각각 비교해 갑의 최적반응을 찾는다.
3. 갑이 A를 택할 때와 B를 택할 때를 각각 비교해 을의 최적반응을 찾는다.
4. 서로의 최적반응이 만나는 칸을 내쉬균형으로 잡고, 다른 칸이 두 사람을 동시에 더 좋게 만드는지 확인해 파레토 효율성을 판정한다.

핵심 근거

갑은 C 아래에서 $5 > -2$, D 아래에서 $10 > 8$이므로 A가 B를 엄격하게 우월한다.
을은 A 오른쪽에서 $15 > 12$, B 오른쪽에서 $10 > 5$이므로 C가 D를 엄격하게 우월한다.
따라서 유일한 내쉬균형은 (A, C)이다.
또한 (A, C)의 보수는 (5, 15)인데 을의 보수 15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주면서 갑의 보수도 5 이상인 다른 칸이 없으므로 이 내쉬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갑은 C 열에서 A의 보수 5가 B의 -2보다 크고, D 열에서도 A의 10이 B의 8보다 크므로 A라는 우월전략을 가진다. 을도 A 행에서 C의 보수 15가 D의 12보다 크고, B 행에서도 C의 10이 D의 5보다 크므로 C라는 우월전략을 가진다. 따라서 "우월전략을 갖지 못한 경기자가 있다"가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두 경기자 모두 우월전략을 가지며, 내쉬균형은 1개 존재한다"이다.
② X: 두 경기자 모두 우월전략을 가지는 점은 맞지만, 죄수의 딜레마가 되려면 우월전략균형이 다른 협조적 결과보다 파레토 열등해야 한다. 이 게임의 내쉬균형 (A, C)는 파레토 효율적이므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다"가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양측 모두 우월전략을 가지지만 죄수의 딜레마는 아니다"이다.
③ X: 갑은 을의 선택을 알더라도 C일 때 A, D일 때도 A를 택한다. 을도 갑의 선택을 알더라도 A일 때 C, B일 때도 C를 택한다.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경기자가 있다"가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두 경기자 모두 우월전략이 있으므로 상대의 선택을 미리 알아도 선택이 바뀌지 않는다"이다.
④ O: 유일한 내쉬균형은 (A, C)이고 보수는 $(5, 15)$이다. 다른 세 칸 $(10, 12)$, $(-2, 10)$, $(8, 5)$ 가운데 두 사람의 보수를 동시에 $(5, 15)$ 이상으로 만드는 칸이 없으므로 이 내쉬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오답 포인트

②에서 "우월전략이 있으면 곧바로 죄수의 딜레마"라고 연결하면 틀리기 쉽다. 죄수의 딜레마는 우월전략 존재만이 아니라 그 결과가 파레토 비효율적이어야 한다. ③도 상대 선택을 안다고 해서 전략이 바뀔 것처럼 느끼기 쉽지만, 우월전략이 있으면 정보가 추가되어도 선택은 바뀌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수행렬 문제는 먼저 각 경기자의 행·열 비교로 우월전략 존재 여부를 본다. 우월전략이 양쪽에 있으면 그 교점이 내쉬균형이다. 그다음 다른 칸이 두 사람을 동시에 더 좋게 만드는지 확인해 죄수의 딜레마인지, 파레토 효율적인지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양쪽 우월전략의 교점이 내쉬균형이고, 그 균형이 다른 결과에 동시에 지지 않으면 파레토 효율적이다.

NoteBase

문 14. A국가에 대한 B국가의 명목환율(A국가의 통화 1단위와 교환되는 B국가의 통화량)이 매년 10%씩 상승한다고 하자. 만일 두 국가 사이에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이 성립한다면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A국가의 물가상승률이 B국가의 물가상승률보다 낮을 것이다.

② A국가의 물가상승률이 B국가의 물가상승률보다 높을 것이다.

③ A국가에 대한 B국가의 실질환율은 해마다 10%씩 상승할 것이다.

④ A국가에 대한 B국가의 실질환율은 해마다 10%씩 하락할 것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명목환율과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의 관계를 이용해 두 나라의 물가상승률 차이와 실질환율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명목환율 e를 'A국 통화 1단위와 교환되는 B국 통화량'으로 두면 e의 상승은 A통화의 상대적 가치 상승, B통화의 상대적 가치 하락을 뜻한다.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에서는 명목환율 변화율이 물가상승률 차이와 같아져 $\frac{\Delta e}{e} \approx \pi_B - \pi_A$가 성립한다.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하면 실질환율은 일정하므로 명목환율 변화가 그대로 실질환율 상승이나 하락을 뜻하지는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명목환율이 해마다 10% 상승하면 $\pi_B - \pi_A = 10\%$로 볼 수 있다. 따라서 B국의 물가상승률이 A국보다 높고, A국의 물가상승률은 B국보다 낮다.
② X: 틀린 부분은 "A국가의 물가상승률이 B국가의 물가상승률보다 높을 것이다"이다. 올바르게는 A국가의 물가상승률이 B국가의 물가상승률보다 낮다.
③ X: 틀린 부분은 "실질환율은 해마다 10%씩 상승할 것이다"이다.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하면 실질환율은 일정하므로 해마다 10%씩 상승하지 않는다.
④ X: 틀린 부분은 "실질환율은 해마다 10%씩 하락할 것이다"이다. 올바르게는 실질환율이 일정하다고 본다.

오답 포인트

환율의 표시방향을 거꾸로 읽으면 ①과 ②를 뒤집어 고르기 쉽다. 또 명목환율이 10% 상승했다는 사실을 실질환율 변화로 그대로 옮기면 ③이나 ④에 흔들리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환율이 '어느 나라 통화 1단위당 다른 나라 통화량'인지 확인한다. 그다음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이면 명목환율 변화율을 $\pi_B - \pi_A$에 대응시키고, 실질환율은 일정하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B통화/A통화 표시 환율 상승은 B국 물가상승률이 더 높다는 뜻이며, PPP가 성립하면 실질환율은 불변이다.

NoteBase

문 15.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정정책을 택했을 때, 이자율에 대한 투자수요와 화폐수요의 조합 중 재정정책의 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① 투자수요는 비탄력적이고, 화폐수요는 탄력적인 경우

② 투자수요는 탄력적이고, 화폐수요는 비탄력적인 경우

③ 투자수요는 비탄력적이고, 화폐수요도 비탄력적인 경우

④ 투자수요는 탄력적이고, 화폐수요도 탄력적인 경우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IS-LM 모형에서 언제 가장 크게 나타나는지를, 투자수요의 이자탄력성과 화폐수요의 이자탄력성의 조합으로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투자수요의 이자탄력성은 이자율 변화에 투자지출이 얼마나 크게 반응하는지를 뜻한다.
화폐수요의 이자탄력성은 이자율 변화에 사람들이 보유하려는 화폐가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를 뜻한다.
재정정책의 효과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구축효과가 작을수록 커지므로, 투자수요는 비탄력적일수록 유리하고 화폐수요는 탄력적일수록 LM곡선이 완만해져 유리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투자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재정지출 확대 후 이자율이 올라가도 투자 감소폭이 작아 구축효과가 약하다.
화폐수요가 탄력적이면 LM곡선이 완만하여 같은 IS 우측 이동에도 이자율 상승폭이 작고 산출 증가폭이 커진다.

② X
틀린 부분은 "투자수요는 탄력적"과 "화폐수요는 비탄력적"이라는 조합이다. 투자수요가 탄력적이면 이자율 상승에 투자 감소가 크게 나타나 구축효과가 커지고, 화폐수요가 비탄력적이면 LM곡선이 가팔라져 이자율이 많이 올라 재정정책 효과가 더 작아진다. 올바르게는 투자수요는 비탄력적이고 화폐수요는 탄력적일 때 효과가 가장 크다.

③ X
투자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점은 유리하지만, 화폐수요도 비탄력적이면 LM곡선이 가팔라져 이자율 상승폭이 커진다. 따라서 구축효과가 완전히 작아지지 않으므로 가장 큰 효과의 조합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화폐수요도 비탄력적"이며, 올바르게는 화폐수요는 탄력적이어야 한다.

④ X
화폐수요가 탄력적이라는 점은 유리하지만, 투자수요가 탄력적이면 이자율 상승에 투자 감소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구축효과가 커져 재정정책 효과가 최대가 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투자수요는 탄력적"이며, 올바르게는 투자수요는 비탄력적이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화폐수요가 탄력적이면 재정정책 효과가 커진다는 점만 기억하고 투자수요의 탄력성 방향을 반대로 고르는 경우가 많다. 이 문항은 LM곡선의 기울기와 구축효과를 동시에 묶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정정책 효과를 묻는 문항은 먼저 "이자율 상승이 얼마나 작게 나타나는가"와 "그 이자율 상승이 투자를 얼마나 덜 위축시키는가"를 함께 본다. 따라서 화폐수요는 탄력적일수록, 투자수요는 비탄력적일수록 재정정책 효과가 커진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재정정책 최대 효과는 완만한 LM과 작은 구축효과의 조합이므로, 화폐수요 탄력적·투자수요 비탄력적이다.

NoteBase

문 16. 물가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GDP 디플레이터(deflator)는 파셰지수(Paasche index)의 일종이다.

② 파셰지수(Paasche index)는 고정된 가중치를 적용해 가격의 평균적 동향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구한 물가지수이다.

③ GDP 디플레이터(deflator)는 어떤 한해 실질국내총생산을 명목국내총생산으로 나누어 얻은 값에 100을 곱하여 구한다.

④ 라스파이레스지수(Laspeyres index)는 해마다 다른 가중치를 적용해 가격의 평균적 동향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구한 물가지수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GDP 디플레이터, 파셰지수, 라스파이레스지수의 가중치 기준과 산식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물가지수로서 당해 연도의 생산구성을 가중치로 반영하므로 파셰지수의 성격을 가진다.
파셰지수는 비교 시점의 수량을 가중치로 쓰는 물가지수이다.
라스파이레스지수는 기준 시점의 수량을 고정 가중치로 쓰는 물가지수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GDP 디플레이터는 당해 연도 생산량을 가중치로 반영하는 물가지수이므로 현재 수량을 가중치로 쓰는 파셰지수의 일종으로 본다.
2번: X. 틀린 부분은 '고정된 가중치'이다. 파셰지수는 고정 가중치가 아니라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 당해 연도 수량을 가중치로 적용한다.
3번: X. 틀린 부분은 '실질국내총생산을 명목국내총생산으로 나누어'이다.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GDP를 명목GDP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구한다.
4번: X. 틀린 부분은 '해마다 다른 가중치'이다. 라스파이레스지수는 해마다 다른 가중치가 아니라 기준 연도의 수량을 고정 가중치로 적용해 가격의 평균적 동향을 측정한다.

오답 포인트

파셰지수와 라스파이레스지수는 둘 다 물가지수라는 점은 같지만 가중치를 무엇으로 두는지가 정반대이다.
여기에 GDP 디플레이터의 산식 방향까지 뒤집어 외우면 2번과 3번을 동시에 틀리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물가지수 문제가 나오면 먼저 가중치가 기준 연도 수량인지, 당해 연도 수량인지부터 구분한다. 그다음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다는 산식을 확인하면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라스파이레스는 기준 연도 고정 가중치, 파셰는 당해 연도 가중치,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GDP 나누기 실질GDP이다.

NoteBase

문 17. 외부효과(external effec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학교 주변에 고가도로가 건설되어 학교 수업이 방해를 받으면 외부불경제이다.

② 노숙자들에 대한 자원봉사로 노숙자들의 상황이 좋아졌다면 외부경제이다.

③ 노후 경유차로 인하여 미세먼지가 증가하였다면 외부불경제이다.

④ 내가 만든 정원이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면 외부경제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어떤 행위의 효과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무상으로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핵심 사실 1: ①과 ③은 어떤 행위가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이다.
핵심 사실 2: ④는 어떤 행위가 주변 사람에게 편익을 주는 사례이다.
판단에 중요한 조건: 외부효과는 거래와 무관한 제3자에게 보상 없이 편익이나 비용이 이전될 때 성립한다.

핵심 개념

외부경제는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보상 없이 편익을 주는 경우이다.
외부불경제는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보상 없이 피해를 주는 경우이다.
직접적인 수혜자나 피해자가 그 행위의 상대방 자체라면 보통 외부효과가 아니라 그 행위의 직접 효과로 본다.

적용 기준

이 문항에서는 편익이나 피해의 존재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본다.
핵심은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효과가 무상으로 퍼지는지 여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학교 주변 고가도로 건설로 수업이 방해되면 도로 건설이나 이용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학생과 학교가 피해를 본다. 제3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므로 외부불경제이다.
2번 X: '노숙자들에 대한 자원봉사로 노숙자들의 상황이 좋아졌다면 외부경제이다'라는 부분이 틀렸다. 자원봉사의 편익은 봉사의 직접 상대방인 노숙자에게 귀속되므로 외부효과라기보다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효과에 가깝다. 올바르게는 '자원봉사와 무관한 제3자의 후생이 보상 없이 높아질 때 외부경제가 성립한다'이다.
3번 O: 노후 경유차로 인해 미세먼지가 증가하면 운전자와 거래하지 않은 주변 주민이 피해를 본다. 제3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경우이므로 외부불경제이다.
4번 O: 내가 만든 정원이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면 정원 조성과 거래하지 않은 주변 사람이 편익을 얻는다. 제3자에게 편익이 확산되므로 외부경제이다.

오답 포인트

외부효과는 단순히 남에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생겼다고 바로 성립하지 않는다. 2번처럼 편익이 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 돌아가는 경우까지 외부경제로 넓게 잡으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형 외부효과 문제는 먼저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한 뒤, 그 밖의 제3자에게 효과가 무상으로 퍼지는지를 본다. 제3자에게 편익이 가면 외부경제이고 제3자에게 비용이 가면 외부불경제이다.

암기 포인트

제3자에게 무상 편익이면 외부경제이고 제3자에게 무상 피해면 외부불경제이며 직접 상대방에게 돌아가는 효과는 외부효과가 아니다.

NoteBase

문 18. A는 하루에 6시간, B는 하루에 10시간 일해서 물고기와 커피를 생산할 수 있다. 다음 표는 각 사람이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물고기와 커피의 양이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단, 생산가능곡선은 가로축에 물고기, 세로축에 커피를 표시한다.)

구분	물고기(kg)	커피(kg)
A	12	12
B	15	30

① B가 물고기와 커피 모두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

② A의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가 B의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보다 더 가파르다.

③ A와 B가 같이 생산할 때의 생산가능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④ 물고기 1 kg당 커피 1.5 kg과 교환하면 A, B 모두에게 이익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절대우위는 시간당 생산량으로, 비교우위와 교역이익은 기회비용으로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A는 하루 6시간에 물고기 12 kg 또는 커피 12 kg을 생산한다.
- B는 하루 10시간에 물고기 15 kg 또는 커피 30 kg을 생산한다.
- 절대우위는 같은 시간 기준 생산량으로 비교한다.
- 생산가능곡선은 가로축이 물고기, 세로축이 커피이다.
- 교역조건은 물고기 1 kg당 커피 1.5 kg이다.

사용할 공식

절대우위는 시간당 생산량이 더 큰 쪽이 가진다.
기회비용은 포기한 다른 재화의 양으로 계산한다.
A의 물고기 1 kg 기회비용은 12/12 = 1kg의 커피이고, B의 물고기 1 kg 기회비용은 30/15 = 2kg의 커피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선지들이 절대우위,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 교역이익을 모두 기회비용과 생산성 비교로 판단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시간당 생산량을 구하면 A는 물고기 2 kg, 커피 2 kg이고 B는 물고기 1.5 kg, 커피 3 kg이다. 따라서 절대우위는 물고기는 A, 커피는 B가 가진다.
2. A의 생산가능곡선은 절편이 물고기 12, 커피 12이므로 기울기는 $-12/12 = -1$이다. B의 생산가능곡선은 절편이 물고기 15, 커피 30이므로 기울기는 $-30/15 = -2$이다.
3. 기회비용을 비교하면 A는 물고기 1 kg 생산에 커피 1 kg을 포기하고, B는 커피 1 kg 생산에 물고기 0.5 kg을 포기한다. 따라서 비교우위는 물고기는 A, 커피는 B이다.
4. 교역조건인 물고기 1 kg당 커피 1.5 kg은 A의 물고기 기회비용 1과 B의 물고기 기회비용 2 사이에 있으므로 A와 B 모두 교역이익을 얻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B가 물고기와 커피 모두 절대우위를 가진다는 진술이 틀리다. 절대우위는 같은 노동시간 기준 생산량으로 비교해야 한다. A는 1시간에 물고기 2 kg, B는 1시간에 물고기 1.5 kg을 생산하므로 물고기는 A가 절대우위를 가진다. 커피는 A가 1시간에 2 kg, B가 3 kg을 생산하므로 B가 절대우위를 가진다. 틀린 표현은 '물고기와 커피 모두'이고, 올바르게는 '물고기는 A, 커피는 B가 절대우위를 가진다'이다.
② X: A의 생산가능곡선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는 진술이 틀리다. A의 기울기는 -1, B의 기울기는 -2이므로 절댓값 기준으로 B의 생산가능곡선이 더 가파르다. 틀린 표현은 'A의 ... 더 가파르다'이고, 올바르게는 'B의 생산가능곡선이 더 가파르다'이다.
③ X: A와 B가 함께 생산할 때의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는 진술이 틀리다. 두 사람의 기회비용이 각각 일정하므로 공동 생산가능곡선은 직선 두 개가 이어진 꺾인 선으로 나타난다. 틀린 표현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이고, 올바르게는 '비교우위에 따라 특화 구간이 나뉘는 꺾인 생산가능곡선이 된다'이다.
④ O: 물고기 1 kg을 커피 1.5 kg과 교환하면 A는 물고기 1 kg을 직접 만들 때 포기하는 커피 1 kg보다 더 많은 1.5 kg의 커피를 얻으므로 이익이다. B는 물고기 1 kg을 직접 만들면 커피 2 kg을 포기해야 하는데 교역으로는 1.5 kg만 내면 되므로 이익이다. 교역비율이 두 사람의 기회비용 사이에 있으므로 ④가 옳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가장 큰 함정은 하루 총생산량만 보고 절대우위를 판단하는 것이다. 절대우위는 같은 투입량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노동시간이 다르면 시간당 생산량으로 환산해야 한다. 또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는 음수이므로 '더 가파르다'는 표현은 절댓값이 더 큰지를 봐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과 교역 문항은 먼저 같은 시간 기준 생산량으로 절대우위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기회비용으로 비교우위를 정리한 뒤, 마지막으로 교역비율이 두 사람의 기회비용 사이에 들어오는지를 보면 된다.

암기 포인트

절대우위는 생산성, 비교우위는 기회비용, 상호이익 교역은 두 기회비용 사이의 교역조건으로 판단한다.

NoteBase

문 19. 단순 케인지안모형에서 승수(multiplier)는 $\frac{1}{1-b}$이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 승수는 이렇게 크지 않다. 그 이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b는 한계소비성향이다.)

① 조세가 소득의 증가함수이기 때문이다.

② 수입(import)이 소득의 증가함수이기 때문이다.

③ 화폐수요가 이자율의 감소함수이기 때문이다.

④ 투자가 소득의 증가함수이기 때문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단순 케인즈 승수와 현실 경제의 승수를 비교하면서 승수를 줄이는 누출 요인과 이자율 경로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순 케인즈 모형의 승수는 한계소비성향만 반영하여 $\frac{1}{1-b}$로 계산된다.
현실 경제의 승수는 비례세와 수입 같은 누출, 그리고 이자율 상승에 따른 투자 감소 때문에 이보다 작아진다.
핵심 구분은 소득이 늘어날 때 추가 지출이 국내 총수요로 계속 순환하는지, 아니면 세금·수입·이자율 경로로 일부가 빠져나가는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조세가 소득의 증가함수이면 소득이 늘수록 일부가 세금으로 빠져나가 가처분소득과 소비 증가가 줄어든다. 따라서 승수는 작아진다.
② O
수입이 소득의 증가함수이면 추가 소득 중 일부가 해외 재화 구매로 빠져나가 국내 총수요의 파급효과가 약해진다. 따라서 승수는 작아진다.
③ O
화폐수요가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면 소득 증가로 화폐수요가 늘어날 때 이자율 조정이 발생하고, 그 이자율 상승이 투자를 줄여 승수를 축소한다. 현실 경제의 IS-LM 경로를 반영한 설명으로 볼 수 있다.
④ X
틀린 부분은 '투자가 소득의 증가함수'라는 표현이다.
현실 경제에서 승수가 작아지는 이유는 소득 증가가 투자를 자동으로 늘리기 때문이 아니라, 이자율 상승이 투자를 일부 구축하기 때문이다.
올바르게는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므로 소득 증가에 따른 이자율 상승이 투자를 줄여 승수를 작게 만든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소득이 늘면 투자도 늘 수 있다는 막연한 인상 때문에 그럴듯하게 보인다. 그러나 승수를 줄이는 요인은 유발지출의 확대가 아니라 누출과 구축효과이다. 투자의 소득증가함수라는 표현은 승수 축소 논리와 연결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실 승수를 단순 승수보다 작게 만드는 요인이 나오면 추가 소득이 세금·수입으로 누출되는지, 또는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가 줄어드는지를 먼저 본다. 반대로 소득 증가가 어떤 지출을 더 늘린다는 진술은 승수를 키우는 방향인지부터 점검한다.

암기 포인트

승수 축소는 누출과 구축효과이다. 조세·수입은 누출이고, 이자율 상승은 투자 감소를 통해 승수를 줄인다.

NoteBase

문 20. 어느 한 국가의 생산함수가 $Y = AK^{0.6}L^{0.4}$이다. 이때, A가 1%, K가 5%, L이 5% 증가하는 경우, 노동자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은? (단, A는 총요소생산성, K는 자본투입량, L은 노동투입량이다.)

① 1%

② 2%

③ 3%

④ 4%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코브더글러스 생산함수에서 노동자 1인당 소득 증가율을 성장회계로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Y = AK^{0.6}L^{0.4}$, A 1% 증가, K 5% 증가, L 5% 증가이다.
구해야 할 값: 노동자 1인당 소득 Y/L의 증가율이다.
주의할 조건: 총산출 증가율을 구한 뒤 노동 증가율을 한 번 더 빼야 하며, K와 L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므로 K/L은 변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총산출 증가율은 $g_Y = g_A + 0.6g_K + 0.4g_L$이다. 노동자 1인당 소득 증가율은 $g_{Y/L} = g_Y - g_L$이며, 같은 뜻으로 $Y/L = A(K/L)^{0.6}$를 이용해도 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는 총산출이 아니라 노동자 1인당 소득을 묻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총산출 증가율을 구하면 $1\% + 0.6 \times 5\% + 0.4 \times 5\% = 1\% + 3\% + 2\% = 6\%$이다.
2. 노동자 1인당 소득 증가율은 $g_{Y/L} = 6\% - 5\% = 1\%$이다.
3. 같은 결과를 $Y/L = A(K/L)^{0.6}$로 보면 K와 L이 모두 5% 증가하므로 K/L은 불변이고, 따라서 Y/L은 A의 증가율인 1%만큼 증가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계산 결과 노동자 1인당 소득 증가율은 1%이므로 맞다.

② X
- 2%는 0.4 × 5%로 노동투입 증가의 산출 기여분만 따로 뽑은 값이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그 값이 아니라 노동자 1인당 소득 증가율이다.
- 틀린 표현은 수치 자체이다. 올바르게는 1%이다.

③ X
- 3%는 0.6 × 5%로 자본투입 증가의 산출 기여분만 반영한 값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와 노동자 1인당 개념을 함께 반영하지 못한다.
- 틀린 표현은 수치 자체이다. 올바르게는 1%이다.

④ X
- 4%는 1% + 3%처럼 총요소생산성 증가와 자본 기여분만 더한 값으로 볼 수 있으나, 노동 증가율과 노동 기여분의 관계를 반영하지 못한 오답이다.
- 틀린 표현은 수치 자체이다. 올바르게는 1%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총산출 증가율과 노동자 1인당 소득 증가율을 혼동하는 데 있다. 먼저 Y의 증가율 6%를 구한 뒤 바로 답으로 고르면 틀린다. Y/L를 묻는 순간 노동 증가율 5%를 한 번 빼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코브더글러스 생산함수에서 1인당 변수를 묻으면 먼저 총산출 증가율을 성장회계로 계산한 뒤 노동 증가율을 빼는지 확인한다. K와 L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면 K/L이 일정하므로 1인당 소득 증가는 A 증가율만 남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Y/L = A(K/L)^{0.6}$이므로 K/L이 그대로이면 1인당 소득 증가는 A 증가율과 같다.

NoteBase